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 영어

# 잡학 사전

구경서 지음

단어, 어원, 일상, 문화 편



air rage  
항공 좀 까줘!



자괴감 듣고 괴로운 요즘 뉴스,  
marmalade dropper



You see, you just don't observe!  
영어를 공부하지만 말을 못할 뿐이야

What?



Just one more thing



길벗  
이지:북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토익, 토플, 시험 영어에 지쳐 정말 재미있는 영어의 세계를 모르는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수업시간 틈틈이 영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주고, 궁금증을 찾아 풀어주면서 영어 상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전 세계 웹사이트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어 총망라한 영어 상식을 그대로 두기 아까워 책으로 엮었다.

삼성전자 미주수출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출부 직원을 위한 business letter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미국 현지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를 직접 영문으로 제작하는 등 실무 영어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해 왔다. 삼성그룹 시절 자체 TOEIC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강남에서 인기 영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 저서

《Must do! 시험에 꼭 나오는 영문법 100가지》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몰래 보는 영어 상식 사전》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틀리는 영어 상식 퀴즈》 길벗이지톡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단어 활용 편》 길벗이지톡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 영어 잡학 사전

구경서 지음

단어, 어원, 일상, 문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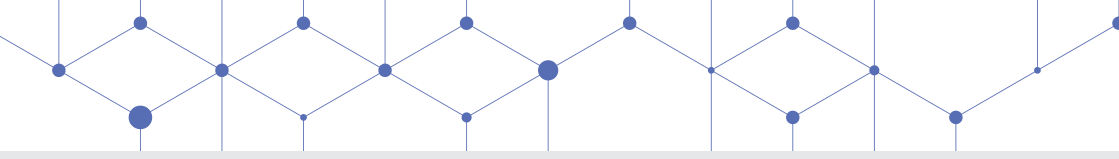


## 세상 공부가 절실한 다 큰 어른들의 기초 교양영어 클래스

점수 따기 외국어 공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휘를 접하고 익힌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민족의 문화, 역사, 그리고 국민 정서를 감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소재와 어휘를 고르고 한 페이지씩 원고를 써 나가면서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자 분들께서 이 책을 소설처럼 가볍게 일독하고도 영미권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이 책이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종의 동기화 버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다룬 소재는 군사, 정치, 경제부터 팝뮤직과 영화배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차 마실 때 10~20cm에 불과한 ‘차잔과 입술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빠곳합<sub>slip</sub> 때문에 차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심에 경고를 하는 문구가 ‘There’s many a slip between the cup and the lip.’입니다. 이런 방심에 대한 우리식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지 독자 분들께서 비교해 보길 바라며 내용을 선정하고 집필했습니다. vanilla sex처럼 성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를 소개한 것도 원어민의 mentality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이나 유래가 불확실한 소재를 언급할 땐 ‘몇 가지 유래 중 하나에 불과’ 또는 ‘유력한 기원’ 등으로 나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말의 ‘식모 vs. 가사도우미’처럼 같은 개념이지만 시대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는 영어 단어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어로 웹서핑해서는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서양식 오븐에서 갓 나온’ 표현들도 듬뿍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문 서적에서나 접할 수 있던 개념들을 쉬운 영어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서



## 차례

001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랑한 ‘마녀’ 위스키, Cutty Sark?	010
002	Sherlock Holmes의 잘난 척	012
003	Steve Jobs와 형사 Columbo의 공통점은?	014
004	8명이 넘으면 회의가 아니다? two-pizza rule!	016
005	Starbucks logo에 인어가 들어간 이유	018
006	wet cappuccino와 dry cappuccino... 당신의 취향은?	020
007	waiter가 사수하려는 wet sales는 뭘까?	022
008	땅콩 항공의 그녀는 air rage?	024
009	Robin Williams의 suicide bag 사건이란?	026
010	soup No. 5? Chanel No. 5와는 무슨 관계야?	028
011	oyster cracker에는 왜 굴이 없을까?	030
012	sweetbread는 빵이 아니고 sweetmeat은 고기가 아니다	032
013	English muffin은 영국에 없다?	034
014	비슷해 보이는 muffin과 cupcake의 결정적 차이는?	036
015	어쩌다 marmalade는 ‘감눌’ 뉴스가 됐을까?	038
016	미국에는 turkey 뱃속에 duck과 chicken이 들어간 별난 요리가 있다	040
017	Coke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042
018	탄산음료 Mountain Dew는 원래 ‘몰래 만든 whiskey’	044
019	vegetarian? 진정한 채식주의자는 vegan뿐!	046
020	wine snob의 세 가지 특징	048
021	돼지는 pig? 돼지를 부르는 몇 가지 방법	050
022	bacon-and-egg breakfast, 돼지와 닭의 역할	052
023	손석희 앵커가 말한 chicken hawk란?	054

024	달콤하지만은 않은 kiss	056
025	계약서 앞에선 쉬운 영어도 다시 보자!	058
026	외교상 만남에 meet은 없고 meet with만 있다!	060
027	단수로 쓰이는 they가 있다?!	062
028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사내 호칭, 내 명함을 부탁해	064
029	사실 아수라 백작이 아니라 아수라 남작	066
030	salt myth란 무엇이고, 왜 일본에서 이 myth는 깨지고 있는가?	068
031	AmeriKKKa는 뭐지?	070
032	이제 안 좋은 건 모두 cowboy의 것	072
033	Seattle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074
034	좌빨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076
035	Rocky 산맥은 자살을 부추킨다?	078
036	Gothic과 gothic은 완전 다르지!	080
037	Elizabeth 여왕을 부를 땐 서른여섯 개의 단어가 필요해!	082
038	미국에서 이런 이름 쓰면 '이력서 광탈'	084
039	알파벳 하나 차이로 뜻이 다른 McWord, McWorld, MacWorld	086
040	boyfriend와 boy friend는 다르다	088
041	wise man과 wise guy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090
042	wife beater는 wifebeater를 입고 wifebeater 문신을 하고 wifebeater를 마신다?	092
043	goat는 왜 '악마'를 상징하게 됐을까?	094
044	joke는 몰라도 practical joke는 형사 처벌된다	096
045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를 영어로 하면?	098
046	gentleman이 '신사'라는 고정관념을 버려!	100
047	hwabyung은 우리만 아는 문화증후군	102
048	big data는 알겠는데 small data는 뭐지?	104
049	mandarin duck은 무슨 오리?	106
050	first finger는 엄지가 아니라 검지	108

<b>051</b>	범죄 단체가 아닌 3대 mafia가 있다	110
<b>052</b>	살인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3대 지표, Macdonald triad	112
<b>053</b>	penis fish, 서양에서는 절대 안 먹는 거라는데...	114
<b>054</b>	Shakespeare가 만들어 낸 야한 괴물의 정체는?	116
<b>055</b>	sweet death? 죽는 마당에 뭐가 달콤하지?	118
<b>056</b>	know가 원래 sex를 의미했다고?	120
<b>057</b>	여성들이 질색하는 Matilda effect	122
<b>058</b>	rape culture에 대하여	124
<b>059</b>	미국에서는 왜 술을 brown bag에 넣고 마실까?	126
<b>060</b>	현실을 외면하면 ostrich, 경계심이 많으면 meerkat?	128
<b>061</b>	현대인의 딜레마, porcupine dilemma	130
<b>062</b>	북한이 지구 최고의 전문가라는 salami tactics는 무엇?	132
<b>063</b>	사치 여행의 지존인 location vacation	133
<b>064</b>	Robin Hood tax? 의적 Robin Hood가 세금도 거뒀어?	134
<b>065</b>	crime of passion... 열정의 범죄?	136
<b>066</b>	공정 거래 위원회가 사랑하는 표현 arm's length	138
<b>067</b>	open container law는 공공장소에서는 술 뚜껑도 따지 말라는 법	140
<b>068</b>	잘 골라 써야 약발 먹히는 'track 1, 2, 3' 외교 전략	141
<b>069</b>	Asian 올리는 bamboo ceiling과 sticky floor	142
<b>070</b>	헉! glass ceiling 깨부셨더니 이번엔 glass cliff!	144
<b>071</b>	Hispanic과 Latino... 뭐가 다른 거지?	146
<b>072</b>	달라도 확실하게 다른 Arab, Islam, Muslim	148
<b>073</b>	Guam, Saipan은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150
<b>074</b>	같은 미국 국적이지만 US citizen과 US national은 다르다	152
<b>075</b>	Midwest는 미국 본토의 중앙에서 서쪽이 아니다	154
<b>076</b>	비슷한 듯 다른 continental US와 contiguous US	156
<b>077</b>	미국의 해외 영토에는 incorporated와 unincorporated가 있다	158



078	손님을 빨리 내쫓고 싶다면 cold shoulder를 대접해라	159
079	갈등의 불씨와 계층간 단절을 초래하는 divide가 있다	160
080	기업 사냥꾼은 shark, 기업 지킴이는 porcupine	162
081	golden handshake? ‘금으로 된 악수’? 무슨 말이지?	164
082	학자들도 rapper처럼 연구 제목에 rhyme을 쓴다	166
083	토론 중에 상대가 횡설수설한다면? ‘word salad’라고 면박 줘라!	168
084	내가 비록 fool이지만 나보다 더한 ‘greater fool’이 있어 투기할 수 있는 거야	170
085	sports betting의 기본 용어인 favorite과 underdog	172
086	odds에 대한 미국식, 영국식, 유럽식 표기 방식의 차이	174
087	Chinese Wall은 기업 윤리도 되고 걸림돌인 정보 장벽도 된다	176
088	Sorry not sorry?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178
089	정당방위의 기준? 집 밖에서는 duty to retreat, 집 안에서는 no duty to retreat!	180
090	대표적인 공포증을 알려주마!	182
091	Mark Twain이 경고한, 주식하기 위험한 달은?	184
092	Cowgirl Espresso가 왜 선정적인 말이지?	186
093	난민이라고 다 같은 처지는 아니지	188
094	government speech? elevator speech? 이게... 연설이야?	190
095	여우 같은 정치인들이 잘 쓰는 교활한 언어 세 가지!	192
096	pizza face는 pancake makeup으로 커버해라?	194
097	영어권 결혼식에서 꼭 들게 되는 두 개의 중요한 표현	196
098	유부녀가 자신의 이름을 짓는 두 가지 방법	198
099	rocket과 missile,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200
100	로비스트로 불리는 워싱턴의 K Street	202

# **OmniDictionary for American /British cultural studies**

words and their etymology/everyday English

## **영어, 탐독의 즐거움**

영어 표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미국 문화와 에티켓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 Steve Jobs 스티브 잡스와 형사 Columbo 콜롬보의 공통점은?

Conan Doyle과 Agatha Christie의 작품들은 누가 범인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Whodunit Who has done it? 스타일의 추리물로 분류됩니다. 반면, 범인이 누구지 아는 상태에서 어떤 단서와 증거로 범인을 압박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추리물도 있는데, 이런 건 Howcatchem How did he catch them?이라고 부릅니다. 형사 콜롬보 Columbo가 대표적인 Howcatchem 스타 일입니다.

사건 초기에 Columbo 형사는 용의자에게 어수룩하게 보입니다.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shoes? 이 신발 얼마 주고 사셨나요?”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사건과 상관없는 자신의 집안 일을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이것도 계산된 연기. 이런 대화 기법을 circumstantial 부수적인 speech라고 부릅니다. 물론, 고의적인 게 아니라 대화 기법이 서툴러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용의자와 시답잖은 대화를 한 후 떠나면서 그는 ‘There’s something

that bothers me.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One more question.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요.’ 중 하나를 말하며 용의자를 쫓게 하는 결정  
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Just one more thing.은 Steve Jobs도 표절(?)해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신제품 PT를 끝마칠 듯하다가 One more thing.이라고 말하죠. PT에서 사  
용하는 이런 식의 대화체 기법을 Stevenote라고 부릅니다. 원래 PT 등에서  
하는 기조연설을 keynote speech라고 하는데, Steve Jobs는 이 keynote  
speech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대화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만의  
keynote speech라는 의미로 Stevenote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 wet cappuccino와 dry cappuccino... 당신의 취향은?

cappuccino가 wet인지 dry인지는 우유와 거품의 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유가 더 많으면 wet, 거품이 더 많으면 dry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cappuccino를 주문할 때 직원이 “wet or dry?”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유와 거품의 비율은 상대적 개념이어서 비교급인 wetter와 drier를 쓰기도 합니다.

wet과 dry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6년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쿠바 간에 합의된 난민처리 방식을 wet foot and dry foot policy라고 부릅니다.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의 플로리다로 가다가 해상에서 적발되면 이들을 wet foot이라고 불렀고,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한 직후 붙잡힌 난민은 dry foot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양국은 wet foot은 쿠바로 송환하고 dry foot은 미국의 영주권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 역할을 하는 Rio Grande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경멸적으로 **wetback**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불법 체류하는 멕시코인들을 붙잡아서 멕시코로 강제 송환한 **Operation Wetback**이라는 작전도 있었습니다.



## 땅콩 항공의 그녀는 air rage?

세상이 온통 **rage** 분노로 가득합니다. ‘rage가 없는 영역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항공기 승객의 기내 난동인 **air rage**와 운전 중 발생하는 **road rage**는 이미 유명하고, 자전거나 모터 사이클 탑승자들끼리의 시비로 생기는 **bike rage**, 컴퓨터가 내 뜻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먹통이 될 때 치미는 울화인 **computer rage**도 있습니다. 질긴 플라스틱 포장재가 잘 뜯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wrap rage** package rage도 있죠. **steroid**를 남용해 현실감이 떨어지고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건 **roid rage**라고 하는데, **steroid**의 뒷부분인 **roid**를 이용해 **road rage**와 나름 **rhyme**을 맞춘 표현입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rage**는 **work rage**일 겁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주먹으로 자기 책상을 치거나 서류를 찢는 등 소심하게 혼자 분노를 표출하면 **desk rage**이고, 동료 또는 상사와 맞짱 뜨면 **work rage**가 됩니다. 총기 사용이 가능한 미국에서 **work rage**의 끝판은 총기난사입니다.

1986년, 1991년, 1993년, 2006년에 미국 내 여러 우체국에서 굶직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o postal**이라는 표현은 총기난사가 아니어도, 꼭 우체국이 아니어도 ‘**work rage**를 보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어쩌다 marmalade 마멀레이드는 '감놀' 뉴스가 됐을까?

marmalade는 과일 껍질까지 잘게 썰어 설탕에 절인 jam입니다. 다만, 대상 과일은 citrus fruit 감귤류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orange jam과 orange marmalade의 차이는 orange 껍질의 유무입니다. 껍질을 잘게 갈아서 육안상 jam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엔 marmalade spread라고 부릅니다.

marmalade dropper는 muffin choker와 비슷한 뜻입니다. toast 나 muffin에 marmalade를 바르려는 순간, 듣거나 읽게 되는 빅뉴스가 marmalade dropper입니다. 당연히 marmalade는 식탁이나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citrus 또는 citrus fruit은 lemon, lime, grapefruit, orange 등의 감귤류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inter-fertility 상호 교배 가능성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귤류의 종류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껍

은 tangerine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의 tangerine 품종명: mandarin orange과 제주산 tangerine 품종명: clementine은 외관상 비슷해 보여도 족보는 다릅니다. clementine의 가장 큰 특징은 껍질이 얇아서 쉽게 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중해의 어느 citrus와 Florida산 sweet orange의 교잡종입니다. 한라봉도 일본에서 개발된 교잡종 orange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종이 나올 가능성은 citrus fruit이 가장 높습니다.





## vegetarian?

### 진정한 채식주의자는 vegan뿐!

vegetarian 채식주의자는 채식하는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동물성 음식을 전혀 안 먹는 가장 엄격한 vegetarian은 vegan이라고 부릅니다. 꿀도 동물성 부산물이라고 먹지 않습니다. vegan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vegan이 된 이유가 동물을 죽이는 것이 못마땅해서인 경우는 ethical 윤리적 vegan, 동물 사육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경우는 environmental vegan이라고 부릅니다.

고기와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계란을 먹으면 ovo egg를 뜻하는 라틴어 vegetarian입니다. 고기와 계란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을 먹으면 lacto milk를 뜻하는 라틴어 vegetarian이고요. 고기는 먹지 않지만 유제품과 계란을 먹으면 lacto-ovo vegetarian입니다.

동물성 해산물을 먹는 경우는 pescatarian 페스카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fish

가 스페인어로 **pescado**, 이탈리아어로 **pescare**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소나 돼지와 같은 **red meat**은 안 먹지만 닭, 오리 등의 가금류 **poultry**를 먹으면 **pollotarian**이 됩니다. **chicken**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로 **pollo**여서 생겨난 표현입니다.

**flexitarian**이라는 어정쩡한 **vegetarian**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vegan**이지만, 가끔씩 영양 공급 차원에서 **meat, fish, egg, milk** 등을 먹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semi-vegetaria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손석희 앵커가 말한 chicken hawk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있거나 면제받은 정치인 중에서 군사적 강경파hawk를 chicken hawk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면 ‘겁쟁이’라는 뜻인 거죠. 베트남전 당시에는 war wimp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자신들은 군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등 떠미는 비겁한 정치인들을 가리켰습니다. wimp도 chicken처럼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chicken의 ‘겁쟁이’ 이미지가 반영된 또 다른 표현으로 schedule chicken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 여러 부서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기 부서는 도저히 기한 내에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프로젝트 실패의 주범으로 비난 받을까 봐 끝까지 버티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버티다 보면 다른 부서가 먼저 산통을 깰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버티는 일종의 chicken game입니다.

서구 전래동화에도 겁쟁이 닭이 등장합니다. Chicken Little이라는 별명을 가진 닭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에 머리를 맞습니다. 그러자 Chicken Little은 “The sky is falling!”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주변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이런 캐릭터에서 유래해 Chicken Little은 ‘비관론자’, ‘걱정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chicken이 원래의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chicken colonel은 육군 대령의 코믹한 별명입니다. 대령 계급장의 eagle을 chicken으로 바꾼 거죠. chicken drumstick은 닭다리 chicken leg를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chicken은 입술이 없다는 점을 포착해 누가 수준 낮거나 황당한 질문을 던져 짜증나게 하면 “Do chickens have lips?”라고 반문해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의역하면 “그게 질문이니? 뭐 그 따위 질문을 해?” 정도의 의미입니다. It tastes like chicken.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떤 음식의 맛을 보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거나 별다른 flavor가 느껴지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 AmeriKKKa는 뭐지?

불편하고 맘에 안 드는 대상을 '디스'할 때 c, s, a 대신 k, \$, @를 사용합니다. Amerika는 1960년~1970년대에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벌인 젊은이들이 미국 정부를 비난하며 사용한 표현인데, 심사가 더 뒤틀리면 AmeriKKKa, AmeriKKK@라고도 씁니다. 공산주의, 민주당, 공화당이 싫으면 Kommunist, Demokratik, Republikkan으로 표기하죠. 이뿐만 아니라 Kapitalism, Bu\$h, App£e, U\$A 등 일단 목표물만 정해지면 거의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표현을 eye dialect **시각적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풍자성을 지닌 표현을 satiric **풍자적인 misspell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재치 있는 eye dialect 중에 green Chri\$tma\$가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아 green **초록풀**이 그대로 보이는 성탄절을 green Christmas라고 하는데, green Chri\$tma\$의 green은 dollar를 뜻합니다. dollar 지폐의 뒷면이 초

록색이어서 dollar의 별명이 green 또는 greenback이기 때문이죠. green도 돈을 의미하고, s까지 \$로 바뀌서 Christmas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만화 등에서 that을 dat으로, women을 wimin으로 표기해 눈에 띄게 하는 것도, 기업에서 제품 브랜드를, 예를 들어, Cream을 Kream으로, Fruit을 Froot으로 정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eye dialect입니다.





## boyfriend와 boy friend는 다르다

friend zone은 연인 관계가 아닌 그냥 친구 사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시하는 남성에게 여성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I got friendzoned by Rachel. 레이첼이 나보고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하네.처럼 friendzone이 동사로도 쓰이죠. friend zone 때문에 boyfriend와 boy friend를 구분하는 joke까지 생겼습니다. boyfriend는 진짜 남자 친구연인이고, boy와 friend를 띄어 쓴 boy friend는 ‘남자 사람 친구성별이 남자인 그냥 친구’입니다. 띄어쓰기 된 공간을 friend zone으로 보는 겁니다.

boyfriend와 boy friend의 중간 개념으로, 대다수 한국인은 이해하지 못할 friend with benefits 줄여서 FWB가 있습니다. 연인 감정 없이 오직 sex만 하는 관계의 이성 친구sex buddy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benefits는 결국 서로에게 제공하는 ‘무보수 성접대’를 의미합니다. boyfriend나 girlfriend가 있는 상태에서 friend with benefits를 따로 ‘키우는’ 해괴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mentality입니다. 인터넷에는 FWB etiquette, FWB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 등도 소개돼 있습니다.



## 여우 같은 정치인들이 잘 쓰는 교활한 언어 세 가지!

권모술수에 능한 여우 같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wording** 표현이나 단어의 선택에서도 교활하고 치밀한데, 그들이 잘 써먹는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oaded language** 의도적 언어 또는 **emotional language**입니다. **tax reduction**처럼 무미건조한 표현보다 **tax relief** 조세 부담의 경감라고 하면 뭔가 국민들을 ‘안심 **relief**’시켜 주는 듯한 감성적 임팩트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뜻하는 **quantitative easing**도 그런 예인데, 이걸 기준 금리가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 낸다는 것을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죠. 사실상 기만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distancing language** 거리를 두는 언어입니다.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나’ 또는 ‘우리’와 일정 거리를 두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암시하려는 기법입니다. 창문을 깨뜨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할 때 I'm sorry I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수동형을 사용해 I'm sorry the window is broken. 창문이 깨져서 유감입니다. 이라고 말하면서 행위 주체를 감추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군사작전 중 민간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때 collateral damage 부수적 피해 라는 안개 낀 듯한 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것도 어떻게든 면피용 꼬나풀을 붙잡으려는 distancing language입니다.

세 번째는 dog-whistle language입니다. dog whistle은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지만 개는 잘 들을 수 있는 고주파음이 나오는 호루라기를 뜻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예리한 관찰자나 열렬한 지지자들의 귀에는 강하게 어필되는 완곡어법의 언어입니다. tradition, our long-standing values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가치관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면 보수적 의지와 색채를 던지시, 그러나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언어 중 구사하거나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언어일 수 있습니다.

# 영어와 교양의 환상 밀착 COLLABORATION!

## 세상 공부가 절실한 다 큰 어른들의 기초 교양영어 클래스

수십 년 외워도 안 되던 기초 영어, 핵심은 네이티브에 있다!

허구한 날 단어장만 붙잡고 있어도 영어 한마디 못 하는 진짜 이유는?

‘네이티브 영어’를 알아야 진짜 말이 통하니까!

요즘 당신의 뒷목을 강타하는 marmalade dropper, muffin choker는? wet cappuccino와 dry cappuccino 중 당신의 취향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네이티브 영어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

하룻밤 사이 단숨에 읽는 기초 교양과 요즘 영어!

미국인은 왜 FOX NEWS를 욕하면서도 볼까? San Francisco와 Massachusetts는 같은 정당을 찍어도 코드가 너무 다르다? 매일 화두에 오르는 미국 정치의 속사정, 세계를 관통하는 미국 문화의 정수를 엄선해 담았다! 단숨에 쉽고 재밌게 보통의 어른들이 갖춰야 할 일반 상식을 꿰뚫는다!



영어 잡학 사전 - 단어, 어원, 일상, 문화 편  
OmniDictionary for American/British cultural studies  
— words and their etymology / everyday English

9 791159 240706 04740  
ISBN 979-11-5924-070-6 값 10,000원